

기계설비협의회 2006년 신년인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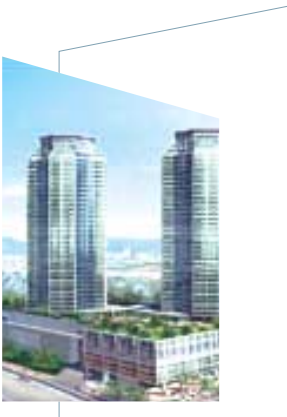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기계설비인 윤리헌장 선포



기계설비협의회(회장 김문정)는 지난 1월 5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0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기계설비인 윤리헌장을 선포하였다.

이날 선포된 「기계설비인 윤리헌장」은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중학),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강신형), 한국냉동공조협회(이완근), 한국설비기술협회(박종국), 설비엔지니어링협회의회(김선하) 등 5개 단체장과 원로설비인으로 구성된 「기계설비협의회」에서 지난 1997년 7월 18일 제정 선포된 「기계설비인의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이날 선포한 것이다.

한편 이날 기계설비협의회는 냉동 및 공조산업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설비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산학협동을 통한 후배양성과 헌신적인 협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하여 설비업계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이바지한 바가 지대한 최상홍(주)한일엠이씨 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김광남 영풍진흥기업(주) 대표이사, 한도영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민우(주)삼우설비컨설턴트 대표이사, 한상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설비부장에게 포상패를 수여하였다.





△ 공로패를 수상받는 최상홍 (주)한일엠씨 회장



△ 포상패를 수상받는 김광남 영풍진흥기업(주) 대표이사

기계설비인 윤리헌장

기계설비산업은 주거공간의 편의와 쾌적함을 제공하고 생산현장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산업분야이다. 이에 우리 기계설비인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주체로서 사명감을 지닌다.

- 우리 기계설비인은 각자의 기술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한다.
- 우리 기계설비인은 기술혁신을 추구하여 설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 우리 기계설비인은 연구, 설계, 제조, 시공, 관리의 각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우리 기계설비인은 환경친화형 에너지절약기술 개발과 보급에 이바지한다.
- 우리 기계설비인은 설비분야를 발전시킬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 기계설비인은 윤리확립을 통해 기술인의 긍지와 명예를 지킨다.

기계설비협의회

2006년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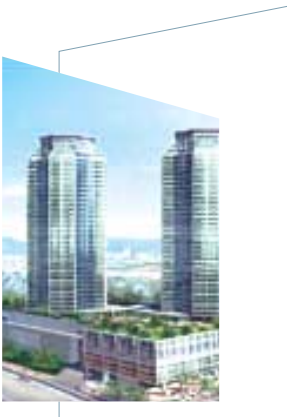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건설업 제2의 전성기 가져올 것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1월 7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와 대한설비 건설협회 박중학 회장을 비롯한 건설관련단체장 등 건설관련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홍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속히 합리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올해 국내 건설경기는 SOC투자 위축과 8.31대책 등의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행정도시 및 기업·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업계의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확대 등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제2의 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김원기 의장은 격려사에서 「한국건설산업이 올해 해외건설 수주목표 130억 달러를 달성해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반세기 건설산업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긴 비효율적 관행과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혁해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우측에서 두번째)은 이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우측에서 세번째)과 설비건설업계의 당면과제 등에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또 김원기 의장은 「대형 건설사와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지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업계와 정부간의 신뢰 또한 견고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부총리는 축사에서 「올 한해 동안 건설인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과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는 8. 31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택지공급을 늘리는 한편 공공부문 및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